

어린이 탕상과 화상 유발하는 장난감 조심해야

최근 2년간 '리얼로리'(真煮)라는 미니주방 장난감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유형의 장난감은 일상 주방기구의 미니버전(迷你版)으로서 재료를 명화(明火) 또는 미니인덕션(迷你电磁炉)으로 가열하여 조리할 수 있다.

많은 지역 알림 발부 '리얼로리' 미니주방 위험

최근 2년간 북경, 강소, 광둥 등 지역의 소비자보호위원회,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모두 '리얼로리' 미니주방 장난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광둥성 심수시시장감독관리부문은 류통 분야의 21가지 상품을 수집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대전(带电) 부품과의 접촉에 대한 보호가 미비했고 일부 제품의 구조는 가전제품의 관련 요구사항에 미달했으며 일부 제품은 전원 코드(电源线) 설치가 불합리했다고 밝혔다.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은 이러한 유형의 장난감은 화재, 굽힘, 중금속 기준 초과 등 방면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소성 태주시품질검사원(院)은 올해 실시한 한차례 모니터링에서 어린이 주방 용품 문제 발견률이 70%에 도달했다고 표시했다.

강소성소비자보호위원회 직원 공영장은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 비교 실험을 진행했는데 제품의 로고(标志标识), 전기 성능(电气性能) 및 식품 접촉 재료(食品接触材料)의 안전에 3가지 방면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로고나 사용설명서가 부족하여 어린이가 '리얼로리' 주방도구를 잘못 사용하기 쉽고 이 때문에 화상, 굽힘, 감전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영장은 말했다.

전기 성능 방면에서는 전원 연결 및 외부 케이블이 표준 요구사항에 맞지 않고 입력 전력(输入功率) 및 전류(电流) 항목이 표준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두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는 소개했다.

"전기 히터(加热器)가 작동하면 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전선이 너무 가늘면 발열 현상이 나타나고 열이 달아오르면 전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다." / 광명넷



영유아, '백일해'에 쉽게 감염!

백일해(百日咳)는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통제법>에 규정된 B형 전염병으로 영유아가 특히 감염되기 쉽다.

백일해란 무엇인가?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백일해는 백일해 바우터균(鲍特菌)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후 전형적인 증상은 발작성 및 경련성 기침과 기침에 흡기성(吸気性) 고함소리를 동반하며 질병 경과가 2~3개월 동안 지속되므로 '백일해'라고 한다.

백일해 성분을 함유한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 백일해 병력이 있는 사람, 성인은 감염후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백일해는 어떻게 전파되는가?

사람은 백일해 바우터균의 유일한 숙주이며 백일해 환자, 잠복감염자 및 보균자가 감염원이다.

백일해 바우터균은 주로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 세균이 공기 중 확산되고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이 세균이 있는 비말을 흡입하여 감염된다.

영유아의 경우, 백일해 바우터균에 감염된 부모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감염원이다.

어떤 사람들이 백일해에 걸리기 쉬운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백일해에 취약하지만 영유아 특히 면역 리력이 없는 영유아는 발병 위험이 더 높다. 백일해에 감염된 성인이나 어린이는 림상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 어린이 나이가 어릴수록 합병증과 중증 위험이 높아지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백일해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백일해 성분을 함유한 백신 접종은 백일해를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이는 감염 및 중증 사례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가 면역계획 절차에 따라 어린이는 3, 4, 5개월 및 18개월에 백일해 성분을 함유한 백신을 1회 접종해야 한다. 적령기 아동은 백일해 성분을 함유한 백신을 적시에 전 과정에 걸쳐 접종해야 하며 미접종 아동은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병원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침 등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부모는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영유아를 가까이 접촉하거나 돌볼 때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영유아의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개인 위생습관을 유지하고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가려야 한다. 동시에 일과 휴식에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일을 배치하고 휴식을 취하며 신체단련을 적절하게 하여 자신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중국청년넷

전동치솔이 일반치솔보다 더 좋을가?



우리는 구강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바 일상생활에서 구강 건강 보호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 전동치솔로 일반치솔을 대체하고 치실로 이췌시계를 대체하는 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전동치솔이 정말 일반치솔에 비해 청결도가 더 높을까?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 거리가 넓어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중일우호병원 구강의학센터 주임이며 소아조기 교정센터 주임인 서보화는 현재 세계보건기구(世衛組織)는 여전히 수동 소두부 연모 치솔(小头软毛牙刷)을 권장하고 있고 더 나은 청결 효과를 얻기 위해 저온 살균 치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치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치아 청결 방법으로서 치아 사이 거리가 넓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췌시계의 사용으로 인해 치아 사이 거리가 넓어질 수 있다.

"성인의 치아 교정이 치아를 흔들리게 하지 않을까?"는 질문에 서보화는 치아 교정은 나이와 관계없이 치주가 건강하면 교정을 진행할 수 있고 건강과 미관상 모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표시했다.

/ 인민넷 - 조문판

판람근 함부로 먹지 말 것!

요즘은 여러가지 호흡기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시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판람근과립을 스스로 복용하는데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판람근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최근 40세의 장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기력하며 목이 말라 병원으로 실려갔다. 입원후 그는 점차 의식불명 및 혼수상태 증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8봉지의 판람근과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장씨는 당뇨병과 고혈압 병력이 있었는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규칙적으로 혈당강화제를 복용하지 않고 스스로 중단했다. 발병 전날 저녁 식사후 장씨는 계속 배가 붓고 통증이 있었으며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판람근과립 8봉지를 모두 타서 마셨다. 오후가 되자 그는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가중되고 입이 마르며 물을 계속 마셔도 완화되지 않음을 느꼈다. 그후 장씨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검사를 거쳐 장씨는 '당뇨병 케톤산증 중독 혼수상태, 고혈압 3급'이란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통해 마침내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는 약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중에 나와있는 일부 중성약은 자당을 첨가하는데 그 함량

이 적지 않아 당뇨병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판람근은 정말 '만능' 감기약일까?

중의에서는 판람근은 성질이 차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피를 식히고 목에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판람근에는 유기산, 알칼로이드 아미노산, 플라보노이드 및 기타 화합물이 포함되어있어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붓기 완화 등 약리학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감기약을 미리 먹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의사의 소개에 따르면 판람근과 같은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질병을 예방할 수는 없다.

의사는 로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 및 만성질환자는 겨울철 감기 및 기침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가장 좋은 예방 조치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자주 환기하는 것이다. 또한 자주 운동하고 수면을 보장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저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

판람근 복용 시 주의사항

1. 예방약으로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없는 경우: 질병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판람근을 예방약으로 장기간 다량 복용하면 위장 기능을 교란하고 간과 신장의 대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약물 사용 설명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바 과량 및 치료 주기 초과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3. 판람근은 풍열류 치료제로 로약자와 허약자가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면 추위, 사지 냉증, 식욕 저하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4. 유아는 비장 및 위장 기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판람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위기(胃气)를 쉽게 손상시키고 소화불량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5. 임신부,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복용전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6. 건강할 사람도 단기간에 다량의 판람근과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판람근은 한성이 있어 자주 복용하면 비장과 위를 손상시키고 설사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

7. 판람근을 장기간 다량 복용해서는 안된다. 간의 해독 능력이 줄어들면 축적되어 중독되기 쉽고 소화계통 및 조혈계통을 손상한다.

/ 인민넷 - 조문판



근 40%의 락상 집에서 발생

로인과 아이 부상 정도 달라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상해 모니터링 계통에 보고된 232만 4,577건의 락상(넘어짐) 사례 정황을 분석한 조사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근 40%의 락상이 집에서 발생하고 60세 및 그 이상 로인들의 락상 후 골절률이 높았다.

사실상 락상은 한가지 중대한 공공 위생 문제로서 매년 전세계 68.4만 명의 사망을 초래하는바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우발적 부상 사망 원인이다. 락상은 장애, 기능장애, 활동 제한과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2006년부터 우리 나라는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을 포함한 전국 상해 모니터링 계통을 건립했다. 이번 통계 결과에 따르면 39.41%의 락상이 집에서 발생하고 39.40%가 여가활동에서 발생했다. 부상 유형으로 보면 45.22%의 락상이 타박상을 초래하고 31.57%의 락상이 하지 손상을 초래했다.

어린이, 청소년, 로인 세 부류의 사람은 락상 상해에 가장 취약했다. 그중 60세 및 그 이상 로인의 락상 후 골절률은 36.84%에 달했다. 하지만 로인의 락상을 유발하는 주요 환경 요인은 장애물에 인한 락상, 때 쪼려온 바닥 혹은 고르지 않은 바닥, 무질서한 환경, 손잡이가 없는 등에 의한 락상이었다. 조사보고는 로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로인 친화적 시설을 보다 많이 배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0세부터 9세의 어린이는 락상 후 두부 외상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70% 이상의 영아는 넘어지면 머리를 다쳤다. 연구팀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집안의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학교 및 체육 활동 기간에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컸다.

/ 인민넷 - 조문판